

바지 밑단이 쓸리는 것을 고려해 그 부분을
더 튼튼하게 만들고 야광 반사 테이프를



1 화학 첨가제를 전혀 넣지 않은 카페 드 유종의 건강한 메뉴들. 2 매달 새로운 전시가 열리는 3층의 갤러리 공간. 3 작은 클래식 음악회가 열리는 2층의 아트홀. 4, 5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의 풍경을 보여줄 4월의 전시는 '내방'이다.

몸에 좋은 아트센터

서울 시내에 아트센터는 많다. 하지만 이곳은 조금 특별하다. 산림욕을 하면서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. 방배동에 새로 개관한 유종아트센터는 음악과 미술, 그리고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이다. 신진 작가들의 전시가 개최되는 1층 카페에서는 화학 첨가제를 전혀 넣지 않은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. 유종아트센터를 특별하게 만드는 은은한 숲의 향기는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100% 순수정유액상기화장치 덕분이다. 편백나무 정유는 아로마테라피 효과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을 중화하는 효과가 있다고, 2층의 아트홀에서는 작은 클래식 음악회를, 3층의 갤러리에서는 시각 예술과 건축,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실험 프로젝트가 매달 새롭게 펼쳐진다. 너무 어렵고 거창한 예술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전시들로 꾸며진다는 점이 특징이다. 4월 한 달 동안은 일상의 공간 속 물건을 담은 작품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시각예술전 '내방'이 예정 중이다. 또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6명의 작가에게 6개월간 무상으로 창작 스튜디오를 대여, 홍보물 제작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니 여러모로 착한 아트센터다. 문의 02-599-7709

에디터 | 김화원

